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 영원히 남기고자

김영일 씨는 하루 25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진작가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진 외에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우리 고유의 소리를 기록하는 일이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주)악당이반이라는 국내 유일의 국악음반 전문제작사를 만들어 해마다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악 음반을 제작하고 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사라져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사명감만으로 힘든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김영일 씨. 그의 고독한 길이 우리의 것을 지켜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우리 소리와 첫 만남

김영일 씨는 사진작가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망막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약 20년 전의 어느 날, 그는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이했다. 한 잡지사의 의뢰로 국악인 최수정 씨를 촬영하는 중이었다. 국악이라고 하면 ‘니나노’쯤으로 치부해 버리고 전혀 듣지 않던 그였기에 최수정 씨를 촬영할 때도 그저 망막의 기록, 즉 사진촬영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국악 따위 관심 없고 사진이나 찍겠다는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아서라 세상사 쓸 것 없다(단가 편시춘)’라는 곡이 울려 퍼지자, 그의 망막이 아니라 그의 고막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 노래는 내가 알던 ‘지루한 국악’이 아니었어요. 소리가 사람을 압도해서 셔터를 누를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것이 우리 소리와 진정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김영일 씨는 온몸이 감전이 된 것 같았다. 라디오에서 국악이 나오면 주파수를 돌려버리던 그였는데, 그의 영혼이 국악의 소리에 감전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국악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악을 찾아 전국을 헤매 다니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첫 만남에서 느낀 그 감동을 다시 느끼게 해 줄 소리를 찾아서 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소리를 듣는 것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소리가 아름다울수록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게 되었다. 사진으로 망막의 기억을 기록하듯이, 소리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소리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소리꾼이 죽을 수도 있고, 목소리가 변해서 예전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소리의 뿌리를 기록하는 김영일 씨

가락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찰나를 기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일 씨의 인생 향로는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다. 사진작가에서 소리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그는 최고 기술의 레코딩 기계를 들여와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음반으로 내려 했으나 판매가 전무할 음반을 내 줄 음반사를 구할 수가 없자 자기가 직접 음반사를 만들어 버렸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유일의 국악음반사 ‘(주)악당이반’이다.

악당이반의 음반은 최고의 레코딩 기술인 DSD(Direct Stream Digital) 방식으로 녹음된다. 제작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옆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릴 뿐 아니라, 향후 어떤 형태로든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집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가 하는 작업이 단순히 전통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것을 가장 소중한 그릇에 담아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는 의지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소리로 연결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천년 동안 변치 않는 소리를 찾아

2005년 (주)악당이반을 차린 이후 김영일 씨의 인생은 가시밭길이었다. 지금까지 출시한 국악 음반은 대략 90여 종.



작업하는 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평창에 가정집으로 꾸민 사무실, 곳곳에 음악을 위한 장비들이 가득하다.



평창의 산들을 기록하는 작업은 이곳에 올 때마다 그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판매는 앨범당 8~20장이 전부였다. 매년 음반 제작을 위해 5억 원의 개인 돈이 들어가니 지금까지 대략 50억 원 가량을 손해를 본 셈이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이겠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한다.

“지치기는 해도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니까요. 국악이 우리 음악이라는데, 국민이 모르는 음악이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우리 음악이지요. 그러니까 음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이 국악에게 열렸을 때 맘껏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두기 위해서요.”

김영일 씨는 우리의 소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UN 지정 공식 6개 언어로 음반 소개 페이지를 작성하는가 하면 음반을 가지고 국제적인 뮤직 어워드에도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다.

이러한 그의 도전은 2011년 큰 결실로 돌아왔다. 경주 양동마을 관가정에서 녹음한 음반 ‘정가악회 풍류 III 가곡’이 한국 음반 최초로 그래미상 ‘서라

운드 사운드'와 '월드뮤직' 부문 후보에 오른 것이다. 비록 수상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소리의 예술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이었다.

“상을 받고 싶어서 도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뿐이지요. 세계가 인정한다면 국내에서도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테니까요.”

평창올림픽의 콘텐츠를 기획 중인 그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소리’를 찾아내어 세계인의 축제에서 선보일 것을 구상 중에 있다. 그것은 천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도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종소리의 원형을 담아내는 작업이다. 낙산사 동종이 훼손되면서 900년된 종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게 된 것처럼, 종이 사라지면 소리도 사라진다. 그는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있다.

“소리의 원형인 종소리를 담아보려고 해요. 천년 전과 똑같은 종소리로, 그 웅장한 사운드로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올림픽 개막을 알린다면 멋지지 않겠어요?”

찰나는 영원하지 못하기에 아름답다. 그리고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잡아 기록하는 것은 영원을 잡는 것이기에 더 아름답다. 김영일 씨는 비록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소리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행복하다. 그는 ‘사라져 가는 무형의 것들의 마지막 자취를 쫓아가는 피터팬’이다. 피터팬의 꿈이 여러 사람의 마음으로 번져 함께 하늘을 날아가기를 기대 본다. ✨



평창아라리 보존회 회원의 집에 방문하여 소리를 채록하는 과정

Interview

김영일 / 우리의 소리를 기록하는 사진작가

“이정표 하나 세우고자”

Q. 사진작가로서 국악 음반 제작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원래 국악에 관심이 있으셨는지요?

A. 음악은 좋아하지만 국악의 맛은 몰랐어요. 고리타분하다는 느낌이랄까. 34살 때까지 국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수정 씨의 소리를 듣고 변한 거죠. 누구든지 그 소리의 참맛을 발견하게 되면 안 빠져들 수가 없을 겁니다.

Q.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국악인은 어떤 분이신가요?

A. 배일동이라는 분입니다. 지리산에 들어가 7년 동안 혼자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폭포 밑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소리가 그만입니다. 진짜 통성 이에요. 통으로 시작하고 통으로 끝내는 진짜 소리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산 속에서 소리를 연마하고 있었습니까? 결국 자기가 갈구하는 것을 위해, 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거기 있는 겁니다. 저런 진심을 내가 할 수 있는 기록을 통해서 세상과 공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국악을 기록만 하면 될 텐데, 판매가 안 될 줄 알면서 왜 굳이 음반으로 보급하시나요?

A. 미디어를 통한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죠. 물론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기록한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은 해야 합니다. 그걸 하겠다는 거죠. 언젠가 누군가 우리 소리가 듣고 싶어질 때 들을 수 있는 음반이 없다면 안 되니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Q. 혹시 주변에 후원해 주는 분이나 뜻을 같이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A. 후원이나 지원을 받아낼 줄을 잘 몰라요. 그저 혼자 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저 내가 국악 기록과 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합니다. 제 뒤에 오는 누군가가 제가 한 것을 보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겠죠. 다음에 오는 누군가를 위한 이정표가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Q. 개인으로서 계속하기 힘든 일인데,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간단합니다. 그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항상 인식하기 때문에. 사진작가로서 망막의 기록이 고막의 기록으로 연장되었을 뿐이니 사진작가로서 내가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다.